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이천시와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MOU 체결

2025. 3. 20.



■ CFS-이천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맞손

2025. 03. 20.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경기 이천시와 손잡고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CFS는 지난 17일 이천시와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천 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 시장과 정종철 CFS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와 CFS가 협력해 기업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쿠팡 풀필먼트센터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CFS는 협약을 시작으로 이천시에 물류관리사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천시는 교육생 모집 안내와 일자리 매칭,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사통팔달의 도시 이천시에 물류 기업이 집중된 것에 착안하여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며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 시군의 청년들이 이천시로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최첨단 자동화와 AI를 활용한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적의 근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FS는 지난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백석대, 평택대, 청운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 기술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